



독자광장

잔칫날

양경숙 미쉘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펜실베이니아

우리 성당에 아주 특별한 축제의 깃발이 며칠간 휘날렸다. 북미주 사제단 회의가 열려 한국에서 염수정 추기경님이 오시고 사방으로 흘어져 활동하고 계시는 24분의 사제들이 이곳에 한꺼번에 만나러 오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신자들의 기도와 눈물로 사제품에 오르신 하느님의 귀한 목자들이 모여 미사를 봉헌했으니 우리 성당에 뿌려진 은총과 축복은 산처럼 쌓였을 것이다. 잔칫날이 따로 없다. 내가 어렸을 때 잔칫날이 오면 외갓집 뒷마당에 아낙네들이 커다란 솔뚜껑을 여러 개 뒤집어 놓고 온갖 전과 고기를 부쳐대면 맛있는 냄새가 내 몸을 비틀고 빙글빙글 맴돌면서 나를 놀아 주지 않았다.

신부님들의 일정에 따라 잠깐씩 머물고 있는 사제관이 솔뚜껑이 아닌데도 행여 고소한 맛이 나는 신부님들의 진솔한 얘기가 새어 나오

지 않을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위를 서성거렸다. 염수정 추기경님은 특별히 눈과 귀를 많이 가지셨고 가슴은 운동장 만큼 넓은 분이셨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도 다 기억하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신자들의 이민 보따리를 함께 풀어 보시며 어려움을 나누시려고 애를 쓰셨다. 오실 때마다 성당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둘러 보시고 걱정도 하시고 해답도 내놓으신다.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시다.

천주교에 입교한 지 올해로 19년, 그동안 많은 사제들이 임기를 마치시고 떠날 때마다 상처 난 곳을 스치듯 아프기도 하고 그저 덤덤할 때도 있었다. 특별히 강론을 잘하셔서 말씀이 파도처럼 철썩거리며 밀려올 땐 부딪치는 소리만으로도 나의 일년치 영적 양식이 되었다. 때로는 내 속을 뒤집는 신자를 실컷 때려 달라고

매달리고 싶을 때도 있다. 신부님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먼 강 건너편에 서 있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다. 내적인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으려면 신부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아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양 행세하고 신부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 보는 시간은 고통스럽다. 많은 기도와 봉사 활동에 몸을 던져도 결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일부 신자들과 부대끼며 오늘도 묵묵히 양떼를 몰고 가는 사제의 발걸음은 거룩하고 눈물겹다.